

“無는 有의 근원이다”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1870~1945)는 교토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토학파’의 기초를 마련한 근대 일본의 대표적인 철학자다.

〈절대무의 견성철학〉은 바로 니시다 교수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철학세계를 제자인 코사카 일본대 교수가 정리한 책이다. 니시다 교수는 불교, 특히 선불교의 사상적 전통에 기초를 두면서 서양 사상이나 근대과학을 폭넓게 수용해 동양적인 것과 접목하려 했다. 전통적인 불교적 정신을 계승, 서양철학의 개념적 장치를 인용해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려고 했던 니시다의 철학은 근대정신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서양에서도, 전통적인 중심을 잃어버린 동양에서도 함께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니시다 교수는 서양철학의 개념과 용어를 적절히 인용해 종래 서구적인 논리로는 파악할 수 없던 근원적인 논리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것이 바로 서양적인 ‘유(有)’의 논리에 대항한 동양적인 ‘무(無)’ 사상의 제창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는 모양이 있는 것을 말하며, ‘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을 말한다.

서양철학에는 어떤 의미에서든 모양이 있는 것이 실재(實在)라고 생각돼 왔지만, 니시다 교수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모양이 없는 것을 ‘근본적 실재(根本的實在)’라고 판단했으며,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의 현현(顯現)이라고 주장했다. 즉 서양에 있어서 ‘무’는 오로지 ‘유’의

선불교의 사상적인 전통에 기초 서양철학·근대과학 폭넓게 접목



‘절대무의 견성철학’

코사카 쿠니쓰구 지음 / 식적 역음
장경각 / 1만2천원

결여라고 생각돼 왔지만, 니시다의 오히려 그것을 모든 ‘유’의 근원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와같은 상대적인 개념의 유·무의 말바탕에서 서로를 감싸안았을 때 생겨나는 절대적인 실

재가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니시다 교수가 말하는 ‘절대무’이다. 그것은 이미 ‘유’에 대립되는 상대적인 ‘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무’라고 부른다. 또 ‘절대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모양 있는 것의 근저에는 모양 없는 것이 있으며, ‘모양 있는 것은 모양 없는 것의 그림자이다’라고 니시다의 생각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로 니시다 사상의 동양적 성격이 들어 있다.

이 책에서는 동서양의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다. 니시다의 서양의 문화를 공간적, 이질적, 유형적, 무형의 문화로서 특징지었다. 서양문화를 일괄적으로 ‘유’의 문화로, 동양문화를 ‘무’의 문화로 본 것이다. 결국 이 책의 구성구석에서 니시다 교수가 말하는 큰 줄기는 ‘유’와 ‘무’의 철학이다. 그것을 통해 동·서양 철학과 문화를 대비해 자신의 견성철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소 책이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지만 동·서양 철학의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펼쳐는 그의 식견은 충분한 읽을 거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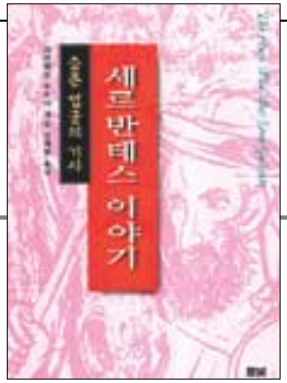
니시다 교수는 일본 최초의 철학서라 불리는 <선의 연구>를 비롯해 <자각에서의 직관과 반성>, <의식의 문제>, <예술의 도덕>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지금도 교토 곳곳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을 정도로 일본인들이 그에게 갖는 애정은 각별하다.

김주일 기자 jim@buddhapia.com



‘슬픈 얼굴의 기사, 세르반테스 이야기’

라파엘로 부조니 지음 / 송재원 옮김
폴빛 / 8천원



대문호의 고단했던 삶 그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자극을 받아 그들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바로 삶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어떤 때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그것이 하나의 큰 감동으로 다가와 존경심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한 인간이 인간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세상이 된 듯 해서 사람에 대한 감동을 아예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다 <슬픈 얼굴의 기사, 세르반테스 이야기>란 책을 만났다.

그 제목 앞에는 작은 글씨로 ‘슬픈 얼굴의 기사’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었다. 이 책은 세르반테스가 감옥에 갇혀 돈키호테를 집필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그 당시 지치고 수척한 56세의 세르반테스가 역사에 남을 역할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해냈다. 돈도 권력도 건강도 바닥이 난 상태였지만 세르반테스는 그

그는 해군 소위로 레판토 해전에 출정했는데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부상을 당했다. 그때 왼쪽 팔을 잃은 세르반테스는 수비대에 편성돼서 전쟁터에 다시 나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 하지만 세르반테스는 군대에서 턱말이 높았다. 병사들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잘 해냈기 때문이다. 답답한 수비대 생활을 마치고 고국인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배에 탄 세르반테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운명인 양 배가 해적에게 나포당하는 바람에 노예가 되고 만다. 세르반테스의 일생은 이렇게 억류 생활로 점철되는데, 그것을 보고 작가는 그가 매우 불운했다고 말하지만 세르반테스는 그 불운을 즐긴 듯 하다.

그는 억울하게 자유를 빼앗겼을 때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평가를 배우려고 애썼다. 노예 생활의 경험들이 돈키호테에 무용담

전투로 불구·노예생활... 감옥서 ‘돈키호테’ 집필

저서야 인생을 꽃피우기 시작했다. 그가 뒤늦게 개화(開化)할 수 있었던 것은 세르반테스가 살아온 평탄치 못한 인생사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창조적 에너지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세르반테스는 가난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 특히, 어머니는 귀족으로서의 품위를 중시하는 여자였다. 그래서 세르반테스는 배가 고파도 배부른 척 해야 했다. 한때 세르반테스 가족은 유랑 생활을 했는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바람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세르반테스는 나이가 들수록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지식인들과 어울리며 시를 쓰고 희곡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는 교수집에 심부름꾼으로 들어가 낮에는 집일을 하고 밤 늦도록 공부를 했다. 세르반테스의 운명이 바뀐 것은 바로 그때였다. 교황 특사의 비서로 발탁된 것이다. 밤낮으로 공부하며 준비한 것이 그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이다. 세상사에 눈을 뜨게 된 세르반테스는 조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십자군 전쟁에 지원하게 된다.

으로 나온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 말이다. 56세에 감옥에서 돈키호테를 집필할 때 그는 석방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작품을 끝마칠 때까지 감옥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고향집에서 돈키호테를 완성했지만 그는 책출간 비용이 없어서 후원자를 찾아야 했다. 그의 작품을 출간하려는 출판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책이 나왔을 때는 흥이 없어서 인쇄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요즘 같았으면 작가가 돈을 엄청 벌었겠지만 세르반테스는 여전히 가난했다.

그는 이미 노쇠해져서 얼굴빛이 파리하고 이빨도 몇 개 남지 않은 초라한 노인이었다면 여전히 펜을 놓지 않았다. 그는 69세에 혼자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일생을 통해 그려냈듯이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였다. 그의 명성은 지금까지 빛나고 있지만 세르반테스 자신은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는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나는 한 인간의 위대한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 박희규 / 숭례문박물관 발행인 · 방송작가

<슬픈 얼굴의 기사, 세르반테스 이야기>는 <돈키호테>라는 위대한 문학작품을 탄생시킨 업적보다는 세르반테스는 한 인간의 굴곡 많고 고단하지만,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강한 인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 문제점 환기



‘아름다운 살인’

박근형 지음
그물고 / 9천5백원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인가?’

2000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NGO 전문지 ‘시민의 신문’에서 환경 전문가로 일한 박근형 씨는 이 물음에 대해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회고한다. ‘우리나라는 보기 흉할 만큼 철저하게 강간당했구나!’ ‘아름다운 살인-새만금의 진실은 무엇인가?’는 박 씨가 기자로 일하며 느낀 ‘새만금 종합 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지은이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 중 ‘새만금’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이러나, 개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의 이사하야(伊賀)만 간척 사업이 아리아케(有賀)해를 어떻게 죽임으로 몰고 갔는지를 예로 들면서 새만금 사업이 왜 시작됐는지, 경제성은 있는지, 환경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소개한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경제성 없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선거철만 되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쓰고 다시 태어났다고 말한다. 여기에다 ‘돈 받고 양심을 파는 학문쟁이들의 고난도 사기술과 놀라운 말장난’으로 끊임없이 경제성 효과를 세뇌 받았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음악오행 원리 쉽게 풀이

‘알기 쉬운 역의 원리’

강지원 지음
정신세계사 / 1만2천원

<알기 쉬운 역의 원리>는 컴퓨터 통신(하이텔)의 역학동호회 멤버로 활동했던 젊은 역리 연구가인 저자가 지난 20년 동안의 공부와 경험을 바탕으로 역(易)의 원리를 아주 쉽게 해설한 책이다. 나름대로 역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조차도 복잡한 한자들을 순서에 따라 외웠을 뿐,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역학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을 위한 원리 소개 위주의 입문서는 의외로 전무했기 때문이다. 또 역의 전반적인 원리보다는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면으로 적용되는 공식을 알려줌으로써 역학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학문보다는 미신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책은 음악오행으로 시작되는 역학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차근차근 드러내 보여준다. 특히 음악오행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한 주역, 오행의 개념, 천지인, 상생상극, 천간과 지지, 12지와 60갑자, 24 절기와 72후, 28수와 천문도, 구공, 하도와 낙서, 팔괘의 응용, 길성과 흉성 등을 쉽게 설명했다. 또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게 음악오행에 대한 유기적인 설명도 곁들여 놓았다. 제 8장 ‘천간지지의 응용’ 편에서는 음악오행이 어떻게 만들어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김주일 기자

육법등(六法燈)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수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영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세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소: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031)541-1417 / 팩스: 031)541-1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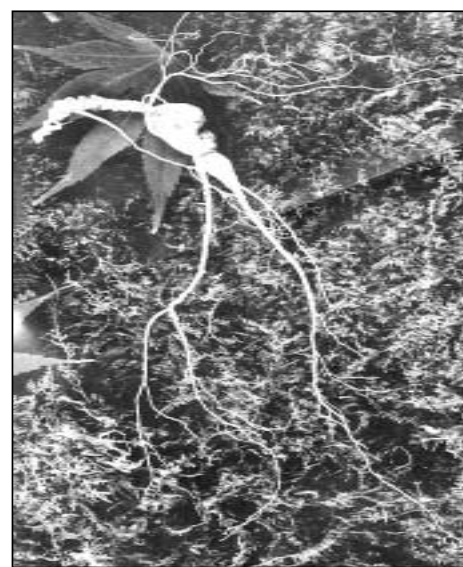
출판 및 대리점 모집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형준비에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볼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초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생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貴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마시려 새롭게 精進하시우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검정(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